

제3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일 시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14:00~15:00	장 소	가족어울림센터 센터장실
출석현황	재적현황 5인 중 5인 출석		
출석위원	문**, 정**, 최**, 최**, 김**		
불참석위원	-		
간사(기록)	최**(사용자 위원), 최**(근로자 위원)		
회의 내용	I. 성원보고 II. 안건 1. 2024년 4분기 퇴직자 2. 근로자위원 선출의 건 : 노사협 비공개 제2024-01호 참고 3.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합의서 작성의 건 (2025.1.1.~6.30) 4. 변경된 사업의 건 5. 기타 안건		
안 건	-		
결 과	2025년 1차 정기회의는 3월 첫째주에 진행 예정		
회의 내용			
<p><input type="checkbox"/> 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정** 위원이 성원보고 함 각 위원들의 안부를 공유하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정** 위원에게 요청함</p> <p><input type="checkbox"/> 정** : 회의 자료를 토대로 회의 안건 첫 번째. 2024년 4분기 퇴직자에 대한 내용 공유함. 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근로자 위원 선출의 건을 공유함(노사협 비공개 제2024-01호 참고). 이에 대한 의견은 모든 안건 공유 후 다시 나누도록 함. 세 번째 안건.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합의서 작성 건을 설명함. 넷째, 변경된 사업의 건을 설명함. 방문지도교육사업은 올해 방문지도사 4명에서 2명 채용으로 사업이 줄고, 센터에서 올 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 온가족보듬사업의 배움지도사의 채용은 3명 정도 계획하고 있음. 곧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임을 설명함</p> <p><input type="checkbox"/> 최** : 두 번째 안건인 근로자 위원 선출의 건은 아이돌봄활동가 중에서도 좋지만, 다양한 분야로 추가 1명을 해도 좋을 것임. 이에 상담사나 한국어 강사는 어떤지?</p> <p><input type="checkbox"/> 문** : 상담사나 한국어 강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방문교육지도사 중에서 위원 선임을 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함</p>			

- 정** : 노사협의회 위원을 처음 구성할 때에도 노무사님의 말씀이 직원, 아이돌봄활동가 1명, 방문지도사 1명의 추천이 좋겠다고 했으므로, 아직 연차가 1년 미만으로 센터에서 근로한 경험이 적지만, 방문교육지도사 쪽에서 다음 회의 때에는 선임되어 사측 대표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선출 공고를 내보도록 하겠음
- 김** : 좋은 생각임
- 정** : 기타 안건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지 질문함
- 김** : 아이돌봄활동가들은 크게 할 이야기는 없지만, 몇 년 전 시청 간담회에서 아이돌봄활동가 중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지금 신규 선생님들과 다른 처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 그런데 지금 내가 17년차인데, 오래 일한 사람에게 별 것 아니더라도 좀 알아주는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회사에서는 년차별로 급여도 다르고 처우가 다른데, 아이돌봄활동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음
- 문** : 너무 좋은 생각이고, 노사협의회 이 자리가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10명 정도 오래 활동하셨거나, 그 중 활동시간을 충실하게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처우를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됨
- 최** : 저의 경우에는 직원들 중 남자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군복무 호봉을 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복지시설 안내나 가족센터 안내를 보면 해줄 수 있으면 군복무 호봉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가 상황이 다른다면 이 부분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음.
- 문** : 좋은 의견이며, 단 사업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적용이 어렵겠지만, 다행히 현재 남자직원들의 팀의 경우 내년에 적용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 : 오늘 두 가지 좋은 사측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직원복지가년에 한 두가지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진다면 더 좋은 직장이 될 것임
- 최** : 또 하나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센터장님과, 특히 퇴사를 결정할 때 미리 상담을 좀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임.
- 문** : 좋은 의견임. 운영지원팀에서 2분기,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의 창구 기간 같은 것을 공지하고 이 기간에 원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창구를 생각해 보겠음
- 정** :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 센터를 대표하여 노측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 문** : 폐회를 선언함

관련 사진

